

## 칼럼

김 화 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 기생충: “아이엠 쏘리 해피”

10일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이 시상식에서 보여준 한국식 매너는 전세계를 압도했다. 할리우드는 특히 봉 감독이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을 칭송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드러낸 데 대해 열광하고 있다.

미국 사람들도 언제나 같이 수상 후보에 오른 배우, 감독들에 대한 배려의 멘트를 잊지 않는다. 그러나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할 정도로 하지는 않는다. 봉 감독은 아예 스코세이지 감독을 시상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렸고 각본에 없는 기립 박수를 이끌어 냈다. 이런 것은 전형적인 한국식 겸손이다.

미국 사람들이 여기에 감동했다. 시상식을 지켜보던 몇몇 젊은(백인) 미국인들의 반응을 담은 ‘짤’을 보면 네 사람 다 감동해서 눈물을 흘린다. 이들은 ‘기생충’의 선전을 기뻐하면서 봉 감독의 스코세이지 예우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

에 달린 댓글들도 봉 감독의 수상이 가장 놀라운 일이고 봉 감독의 수상 소감이 이번 시상식의 백미였다. 보면서 울었다는 것들이 많다.

봉 감독은 스코세이지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는 평언을 소개하면서 누구의 말인지를 남겨 두었다가 통역이 끝나면서 자신이 바로 영어로 “위대한 마틴 스코세이지”라고 한다. 통역을 쓰던 사람이 갑자기 능숙한 영어로 가장 임팩트가 큰 내용을 직접 말하면 그 효과는 배가된다. 봉 감독은 그간 각종 토크 쇼에 출연하면서 이 방식을 즐겨 썼는데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호감도를 계속 높여왔고 결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의 우호적인 분위기로 연결된 것이다.

이 장면은 덴젤 워싱턴이 ‘트레이닝 데이’로 남우주연상을 받았을 때 방금 전 평생공로상을 받고 객석에 앉아 있던 시드니 포티어에게 했던 말을 연상시킨다. 워싱턴은 “40년 동안 포티어의

발자국을 따라다녔는데 같은 날 같은 상을 받았습니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포티어를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항상 당신의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트로피를 높이 올려보였었다.

마지막 작품상 수상 때 관객 모두가 기립 박수를 친 것은 진심으로 ‘기생충’의 수상을 축하한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별마음은 없어도 인사치레를 하는 데는 약하다. 45초 경과로 무대조명이 어두워져서 할 말들이 남은 채 파장되려고 하자 맨 앞 열에 앉아 있던 ‘미국의 국보’ 톰 행크스를 비롯한 거물들이 라이트를 다시 켜라고 합창 구호를 외쳐 다시 조명이 들어왔다. 뉴욕포스트는 행크스가 ‘기생충’ 양코트를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작년에 ‘로마’를 제친 ‘그린북’의 작품상 수상을 놓고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 ‘기생충’의 수상이 그 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라는 말까지 나왔다. ‘기생충’은

봉 감독의 ‘설국열차’처럼 미국 관객들의 정서에 적응하려고 한 영화가 아니다. 그냥 한국어로 제작된 한국 영화다. BTS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을 확인시켜 주었다.

1929년에 시작된 아카데미상은 봉 감독이 ‘로컬’이라고 말한 것처럼 미국 영화계의 축제다. 할리우드도 1927년에 파라마운트의 최초 발성영화 ‘재스 싱어’가 성공하면서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초강대국이 되면서도 그냥 미국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외부에서는 이를 배타적인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아카데미는 최근에는 보이콧까지 나올 정도로 다양성 문제로 홍역을 앓았다.

‘기생충’의 수상은 아카데미를 ‘로컬’에서 벗어나게 했고 인종, 언어, 국적 다양성을 일거에 성취해 주는 큰 의미가 있다. 스페인이 멕시코 영화 ‘로마’와도 의미가 다르다. 시상식을 지켜보던 미국 청년 하나가 한 말이 이번 일에 대한 미국인들의 마음을 요약한다.

“아카데미가 드디어 일했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었지만 아이엠 쏘리 해피.” 마지막으로, 이번에 직접 등장은 못했지만 위대한 한국 배우 송강호 씨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 점은 “아이엠 해피 쏘리”다.

## 社 說

## 소상공인·중소지원 서둘러야

오랜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공포는 그들의 어려움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가길 꺼려하는 분위기로 전통시장과 식당가에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끊겼다. 자동차 관련 부품 수급의 차질로 현대·기아차 생산공장 라인이 멈춰서면서 협력사들의 가동중단이 이어지는 등 지역 중소기업도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차츰 안정기에 접어드는 듯 하지만 이미 입은 피해나 그 후유증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광주시가 매출 급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의 지원 대책은 최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기관·단체 현장 간담회 당시 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소상공인 지원은 특별보증 확대를 골간으로 한다. 올해 지원할 특별보증 규모는 432억원으로 지난해 340억원에 비해 92억원이 늘었다. 업체

당 2천5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1년간 2.5%의 이자를 보전해줘 실질 대출금리는 0.5% 내외다.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자금도 집행된다. 매출이 폭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에 대한 대출 규모(미소금융) 역시 지난해보다 50억원 늘어난 550억원으로 확대됐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6월까지 연장된다. 피해를 입은 자동차부품기업들도 특별보증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업체당 3억원 이내(총 300억원)에서 보충받게 됐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는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6개월 범위 내 신고·납부 등 기한을 연장하고 고지·징수·채납처분도 유예한다.

코로나19로 살얼음판 경기가 더욱 위축됐다. 이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하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최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위조지폐 식별방법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가히 신용카드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용카드 사용이 대중화·보편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금 대신 카드 사용을 선호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실생활에서는 현금사용처도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경상도 모 지역 전통시장 일대에서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여 본 지면을 통해 이를 소개하여 혹시 모를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경각심을 갖고자 한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 아닌 설과 추석 명절 대

목을 앞두고 장보러 온 사람들이 물리는 혼잡한 틈에 그것도 상인들에게 건네는 지폐를 자세히 들여다 볼수 없는 새벽시간대에 과일과 채소등을 구입하는 척하며 5만원권 위조지폐를 건네며 거스름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의 위조지폐 사범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가혹이나 생계가 어려운 영세상인을 울린 사건이 발생한바 있었다.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이들 위폐사범의 피해자들이 위조지폐인 지 식별이 익숙하지 않은 채소와

과일 판매 영세상인과 노인들을 상대로 소액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많은 잔돈을 거슬러 받아 달아났다는 점이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이러한 경우를 두고 하는것이 아닐까 싶다.

물론 경찰에서도 오래전부터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위조지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재래시장과 소형마트, 길거리 영세상인 등을 중심으로 위조지폐 식별법을 적극 홍보하는 등 다각도의 범죄예방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지만 무엇보다 피해자가 사전 이를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는 한 범인을 추적 검거 하기 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위조지폐 식별법을 직접 실습해 보았으면 한다.

일단 5만원 지폐에 대한 위조지폐 여부 판별을 위해서는 일단 불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숨어있는 신사임당 그림이 있는지 살펴본 후 지폐를 기울여 보았을 때 각도에 따라 신사임당 숨은그림 왼쪽에 있는 피형 홀로그램에 우리나라 지도, 태극, 4괘 무늬가 번갈아 나타나는지도 확인해 보면 알수 있다.

김덕형 /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 생활정보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99

## 긴급전화

▲가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 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정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21 (일반)	회 장·발행 인·편집 인 김 평 호
호 남 신 문	편 집 국 장 직 무 대 리 서 선 옥
대표전화 (062) 229-6000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 고 국 (062) 224-5800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기사제보 (062) 971-7400	Tel (02) 2238-0003
팩 스 (062) 222-5547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 프렌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